

S
Strengths

- 사용자 확보의 용이함
- 방대한 추천 콘텐츠
- 높은 접근성
- 경제력 있는 사용자 연령층

기존 웹툰 콘텐츠 소비자를 끌어들이므로써 비교적 쉽게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다.

약 9000개 웹툰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연재되고 있어 추천 콘텐츠를 확보,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대부분의 사용자가 모바일 환경에서 웹툰을 보며, 우리도 동일한 환경에서 서비스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다.

웹툰의 주요 이용 연령층은 30대 직장인으로, 사용자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 서비스의 수익 창출에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W
Weaknesses

-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
- 변경되는 정보 반영의 어려움
- 불분명한 수익 모델
- 혁신성의 부족
- 추천 알고리즘의 부재

웹툰의 내용, 그림체 등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

연재가 이어지며 내용이나 장르가 바뀌는 경우 변경된 데이터를 반영하기 어렵다.

보통 추천 서비스는 수익창출을 위해 콘텐츠 유통을 동반하는데, 웹툰은 기존 유통망이 견고해 서비스 확장이 쉽지 않다.

추천 시스템은 이미 많은 서비스에 적용되어 있어 추천 콘텐츠가 웹툰이라는 점 외에는 혁신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아직 추천 시스템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보장하는 자체적인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O
Opportunities

- 웹툰 연재 사이트의 다양화
- 한국 웹툰의 해외시장 진출
- 웹툰의 드라마, 영화화

주요 포털 사이트 외 50여개가 넘는 플랫폼에서 다양한 웹툰이 연재되고 있어 선별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네이버·카카오·NHN엔터 등이 5개 국가 언어로 웹툰 서비스를 출시하며, 국내 웹툰 전체가 세계화되어 관심을 받는다면 우리 서비스도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신과 함께’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것처럼 웹툰은 최근에 드라마, 영화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웹툰을 즐겨보지 않던 사람도 끌어들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산업 자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

T
Threats

- 네이버의 AIRS 도입
- 불법 웹툰 사이트 기승

작년 3월 네이버는 사용자의 관심사, 콘텐츠 소비 패턴을 분석해 AI가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AI Recommend System을 도입, 웹툰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우리 서비스는 데이터를 수동으로 수집하기에 경쟁력이 떨어진다.

최근 유료 웹툰을 불법으로 복제해 게시하는 사이트가 기승을 부려, 다양한 웹툰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유료 웹툰에서 수익을 내려는 우리 서비스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사이트는 근절시키기 쉽지 않은 사정이다.